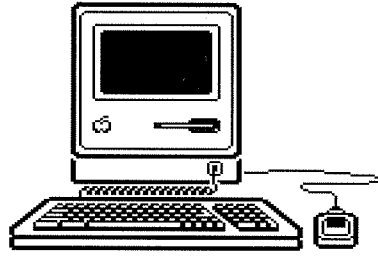


■ 자네트 시스템 고속팩스모뎀
'데이트' GTM1496PC2

자네트 시스템사는 초당 전송속도가 28.8kbps에 달하는 초고속 팩스모뎀카드 'GTM1496PC2'를 개발했다. 미국 록웰사의 칩을 탑재한 이 팩스모뎀카드는 체신부 모뎀 표준규격서를 준용하고 있으며 ITU-T 규격인 V.34를 데이터 압축기법으로



하드웨어

있으며 파일 오픈·클로즈까지 가능하다. 가격은 2백99달러



■ 샌디스크사 플래시 메모리카드 'CompackFlash Card'



채택, 초당 11만5천2백bps까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면 MNP 및 V4.2bis 프로토콜을 탑재해 음성·팩스·데이터 자동검출 수신 기능 및 복구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팩스문서 예약전송, 동보전송, 재전송 기능, 송수신된 팩스문서 자동인쇄, 자동삭제 기능, Drag & Drop 기능, DDE 팩스 보내기 지원, 팩스 수신처 지정 기능, 통신포트 공유기능, 송수신 팩스 문서에 대한 'Thumbnail' 기능지원, 팩스문서를 그래픽 파일로 변경지원, bbs기능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격은 11만 2천원(부가세포함)

■ Laserex SM - 3 Hawk

컴퓨터 또는 LCD 패널로부터 12m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 'Laserex SM-3 Hawk'은 적외선을 이용하여 360도의 커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이 제품으로는 메뉴 아이টে를 선택, 클릭과 드래그 할 수

플래시메모리카드업계의 선두주자인 샌디스크사에서는 'CompackFlash' 라는 이름의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개발하였다. 노트북 컴퓨터에서부터 무선호출단말기와 디지털 카메라 등 개인이동통신기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컴팩플래시 카드는 그 무게가 0.5온스 정도이고 크기는 'Matchbook'의 1/2에 불과하다.

표준 PCMCIA카드와 호환성이 있는 컴팩플래시카드는 올해 안에 소개될 양방향 호출기에 수많은 데이터저장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음성메시지 및 팩스메시지 수신이 가능하며 셀폰으로는 팩스 및 보이스 메일이 가능하다.

2,4,10MB에서 최고 15MB까지 저장가능한 컴팩플래시 카드가 올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32MB의 카드도 출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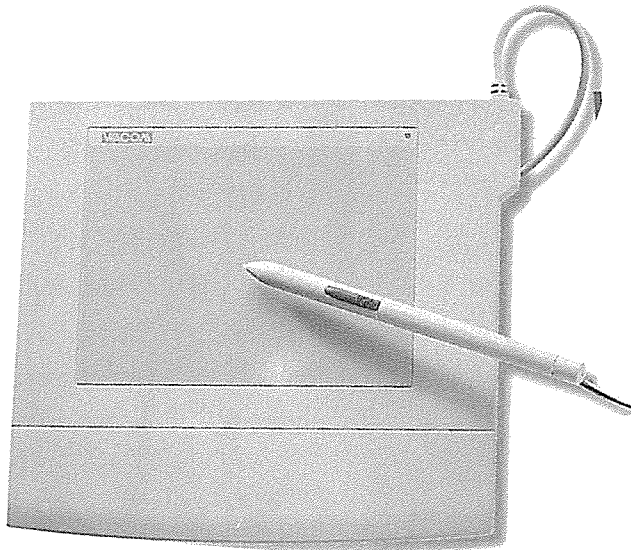
표준 PCMCIA카드와 호환성있는 유일한 제품으로서의 컴팩플래시카드의 가격은 75달러(2MB)에서 3백45달러(15MB)로서 다소 고가에 해당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30%

가량 하락될 전망이다.

■ 외콤 테크놀러지사, '아트패드' 출시

외콤 테크놀러지사에서 출시한 '아트패드(Art Pad)'는 일반적인 마우스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 편집, 도형 디자인, 정밀 묘사 등의 작업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PC용 펜 입력 장치이다.

윈도우즈와 ADI 및 펜 윈도우즈까지 지원해 호환성이 뛰어나며, 마우스 모드와 태블릿 모드를 자동모드로 변환해 주는 에뮬레이션 드라이버를 제공한다. 가격은 1백99달러.



■ 키드보드사, 예쁜 어린이용 키보드 'KidBoard'

키드보드사에서는 회색과 흰색 일변도의 키보드 대신에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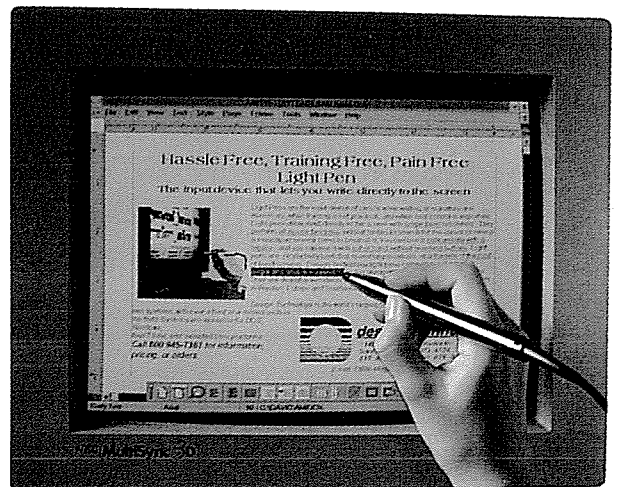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구성된 컬러 키보드 '키드보드(KidBoard)'를 출시했다. 어린이의 작은 손에 맞게 크기를 맞춘 키보드의 자판은 아이콘화되어 있어 글자를 모르는 어린이도 컴퓨터를 다루는데 아무 무리가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키드보드에는 세가지의 교육용 프로그램과 놀이를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게임 프로그램을 기본 제공한다. 가격은 1백29달러.

■ 디자인 테크놀러지사, 다이렉트 라이트펜

싱글픽셀의 해상도와 스크린상에서의 즉흥적인 트랙킹이 가능한 다이렉트 라이트 펜은 마치 종이 위에 펜으로 입력하듯 커서 컨트롤이 자유롭다.

디자인 테크놀러지사가 개발한 라이트 펜(Light pens)은 마우스가 필요없는 디바이스로서 'DOS', 'WINDOWS', 'NEXT' 그리고 'UNIX' 플랫폼상에서 운영된다. 가격은 1백88달러.



■ 한국후지쯔사, '마이이미지/윈'

한국후지쯔가 내놓은 '마이이미지/윈(MY IMAGE/WIN)'은 편집한 문서에 스캐너로 이미지를 읽어들여 간단한 아이콘과 메뉴조작으로 각종 이미지 문서를 손쉽게 만

들 수 있으며, 방금 작성한 이미지 문서를 팩스를 통해 상대방에게 송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팩스로부터 문서나 이미지를 수신하여 PC상에서 직접 편집하거나 인쇄, 보존할 수도 있다.

이미지를 읽어들이 때에는 원고의 종류(일러스트나 사진 등)와 표시용/인쇄용 구분만 지정해주면 원형을 손상하지 않고 읽어들이 수 있으며 프리



통신



스캔(pre-scan)기능으로 읽어들이 원고의 레이아웃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서체를 제공하므로 문자 표현에 한계가 없다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이다.

'마이이미지' 제품을 한국후지쯔사의 그룹웨어 제품인 '팀오피스(TeamOFFICE)'와 연계하면 메뉴에서 직접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메일을 송신할 수 있으며, 서버의 포럼에 직접 등록하거나 혹은 파일로도 보존할 수 있다.

■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플립타입(주) 다빈월드 'CSD-3000'

음성명령 핸드프리기능과 내장형 호출기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의 '삐삐폰'

키-패드 덮개를 갖춘 플립타입의 휴대폰 '후지쯔 CSD-3000'은 다른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장형 호출기능과 음성 인식 다이얼링기능 등이 있다.

후지쯔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내장형 호출기능은 단말기에 음성칩을 내장,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발신자가

직접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으로 최대 5개의 전화번호를 기억한다.

독특한 기능가운데 하나로서 차량운행시 3와트 부스터와 'VICE DIALER 2'를 이용해 음성만으로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음성인식 다이얼링 기능을 갖추고 있다.

'CSD-3000'은 이밖에도 회의중 기능으로 전환하면 빛으로 발광하는 무

음 발광기능, 플립커버를 열지 않고 간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ANYKEY ANSWER 시스템, 완벽한 정보 수신을 위한 20문자 2라인 디스플레이 방식, 다섯개의 마지막 전화번호 자동호출 기능,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1백개의 초스피드 다이얼링, 그리고 여행시 알칼리 배터리를 사용, 자유로운 통화를 실현한 파워팩프러스까지 갖추고 있다.

'CSD-3000'의 무게는 187g, 크기 50 × 137 × 20mm(NiCd 초경량배터리 장착시), 기본사양은 고속 충전기, 고용량/초경량배터

리, 100/200V겸용 어댑터 등이며 선택사양으로는 핸드프리트와 음성인식 장치, 수소배터리 등이 준비되어 있다.

■ 텔슨전자사, 단일채널 삐삐 '로미오'

"텔슨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만들지 않습니다"라는 이색적인 광고문구를 표방하며 광역무선 호출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텔슨전자(주)는 일반 단일채널무선호출기 ROMEO(로미오)를 출시했다.

로미오는 그동안 세계 최소형 크기와 스톱워치기능의 채용 등으로 무선 호출기 시장의 돌풍을 일으켰던 비틀즈



(BEETLES)의 후속 모델로 기능 위주의 단순성에서 벗어나 디자인 차별화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고급 디자인 제품이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고풍택 특수도장의 외장은 단순한 외장처리와 검은색 위주의 패턴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색상의 구현과 수요자의 개성적 선택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형태상의 디자인도 비대칭 구조의 모던한 디자인을 적용, 신세대·신 감각에 맞도록 설계하였다.

로미오는 최대 18개 정보 메모리 용량과 알람기능, 시계기능 및 스톱워치기능, 액정판 자동조명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무게는 48g(배터리포함)



FOCUS

사용할 수 있는 문서라면 마법사를 실행시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여러가지 설정에 대답만 하면 자동으로 이와 연관된 양식의 문서를 얻을 수 있다.

자동고침 기능은 다른 워드프로세서의 상용구 기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단어나 문장 뿐 아니라 그림과 로고, 그리고 표와 그래프도 상용구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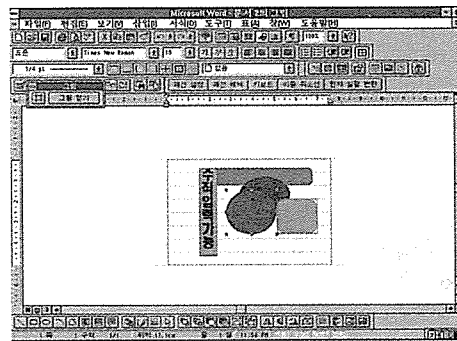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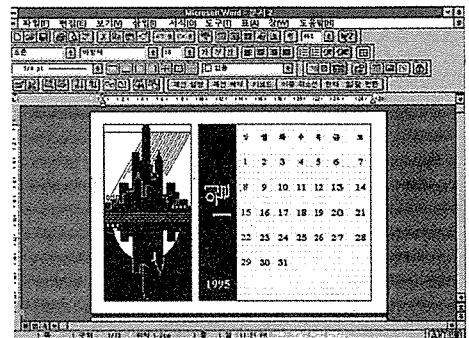
■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즈용 워드프로세서 '한글워드 6.0'

기존의 영문 워드 6.0을 한글화한 한글 워드 6.0은 우선 5.0버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터페이스를 더욱 편리하게 향상시켰다. 한글 워드 6.0으로 버전업되면서 특히 돋보이는 기능은 '잠깐만' 과 '인텔리센스(Intellisense)'의 마법사 기능이다.

'잠깐만'은 기존의 MS사 제품군의 특징이자 윈도우즈 프로그램의 추세이기도 한데, 사용자가 처음 워드를 실행시킬 때마다 랜덤하게 간단한 사용 팁을 알려 주 워드의 몰랐던 기능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법사 역시 MS사 제품군의 특징으로서 사보 제작, 회의록작성, 달력 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로 정의해 계속해서

▶ 달력마법사 기능을 통해 초보자라도 쉽게 달력을 만들 수 있다.



◀ 한글워드 5.0의 단점을 보완, 문서상에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어 문서 편집시 매우 효과적이다.

한글워드 6.0은 툴바를 통한 편집 인터페이스는 이미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각 기능을 툴바에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으며, 이동 및 사용자정의 설계도 자유롭다. 5.0버전에서 다소 불편했던 워드아트, 그리기, 수식편집기, 퀘션 등을 대화 상자를 통해 문서 내에서 직접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워드 6.0은 기존의 여러 워드프로세서의 파일,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픽 파일형식을 바로 읽어 들일 수 있어 문서작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가격은 27만5천원(부가세포함), 업그레이드는 8만8천원.

■ 인텔 'P6' - RISC로 역사적 방향 전환

최근 두차례의 펜티엄 버그 문제로 곤욕을 치른 인텔은 지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SSCC(International Solid State Circuits Conference)에서 펜티엄을 이을 차세대 칩인 P6(개발명)를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P6는 133MHz의 속도를 가지며, 처리 속도가 펜티엄보다 2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은 P6가 멀티태스킹 기능에 적합하도록 만드는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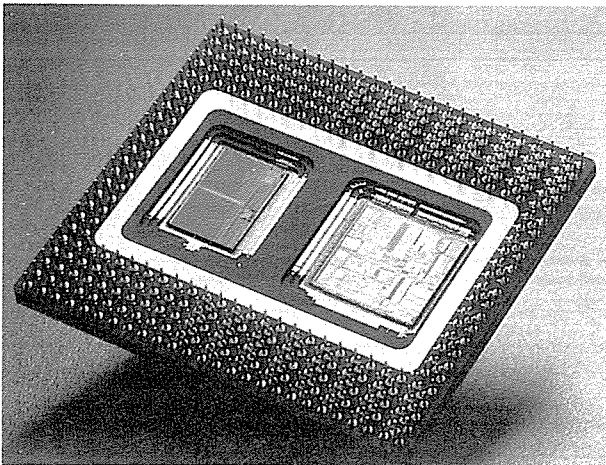
TREND

두배 가까운 트랜지스터를 집적했다. 따라서 시제품 이후 대량생산까지의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둘째 P6는 펜티엄보다 전력 소모량이 훨씬 많아 심각한 발열문제를 안고 있다. P6는 BICMOS공정을 통해 가공되므로 구동 전압은 2.9볼트에 불과하고 전력 소모량은 20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인텔과 노트북 등 OEM업체들은 별도 냉각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엔지니어링 위크스테이션과 대형 서버는 물론, 음성인식·화상회의 등 P6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PC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컴팩처럼 잦은 업그레이드에 불만을 품고 넥스젠이나 아에 파워 PC쪽으로 돌아서는 PC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인텔은 P6를 이미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에게 엔지니어링용 샘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용제품 생산은 올해 4/4분기, 대량공급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P6의 성능은 시제품 시스템에서 200SPEC int 92 이상으로 현재 가장 빠른 펜티엄 프로세서보다 2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추정됐지만 보다 완전한 정보는 제품이 출시될 때 공개될 예정이며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1천5백달러선이다. ⑤7



점을 두었으며, 특히 다이내믹엑세큐션(Dynamic Execution)이라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해 초당 3억번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

인텔의 발표에 따르면 P6는 단일 패키지에 2개의 다이를 넣은 하이볼륨 마이크로프로세서로서 이미지 프로세싱,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방식의 화상회의,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작 등과 같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거래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싱과 같은 서버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P6는 인텔 최초로 RISC 방식을 채택, CISC방식의 x86아키텍처를 본격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P6는 x86 명령어 세트와 완벽하게 호환되지만, 본